

# 3년 전 그 학교서 또...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의혹 '파문'

“2학년 한 학생이 4과목 답안지 미리 확보했다” 광주교육청에 제보 휴지통에 버린 쪽지, 정답과 일치...4개 문항은 수정 전 답안 적어내 서부경찰, 해당 학생 입건...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노트 등 확보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학교는 3년 전에도 시험지가 통째로 유출돼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된 적이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11~13일 치러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한 학생이 4과목 답안지를 미리 확보해 시험을 쳤다는 의심이 든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제보가 학교와 시교육청에 접수됐다.

해당 학생의 1학년 내신 등급은 2등급 대로, 문제가 된 시험 과목은 지구과학, 한국사, 수학Ⅱ, 생명과학 I이다.

학생들은 해당 학생이 시험시간이 끝나고 휴지통에 버린 쪽지에 깨알같은 숫자 등이 쓰여 있었고 확인해보니 해당 과목들의 답안과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시험이 끝날 때마다 쪽지를 찢어 휴지통에 버렸는데 시험 3일째 이를 수상히 여긴 한 학생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험시간 중간에 잘못 출제된 생명과학 4개 문항의 내용이 수정되면서 정답이 정정됐는데, 해당 학생은 수정되기 전 답을 적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조사결과 해당 학생은 지구과학과 수학Ⅱ 각 100점, 한국사 93점, 생명과학 I 86점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생명과학 4문제가 시

험시간 중간에 정정되지 않았다면 100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답안지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더하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 20일 사실 확인을 위해 광주서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평소 시험을 볼 때 시험 답안을 쪽지에 메모해두는 습관이 있는데, 찢어 버렸던 쪽지도 직접 풀었던 시험 답안을 옮겨적은 것 뿐이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수년전 시험부정으로 혼란을 치른 탓에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단계 보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 6명이 교장실에 모여 시험지를 봉인 봉투에 넣고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 비밀번호와 키를 각각 다른 교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다.

시험지 인쇄 시에도 인쇄담당자와 해당 과목 교사 등이 함께 입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무실은 물론 시험지 인쇄 장소에도 CCTV를 운용하고 있다. 교사들이 시험출제시 문제를 PC에 저장하지 않고 외부 저장장치(USB)에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넣어 관리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수년전 시험지 유출사건 때문에 교사 관리체계는 교직원들이 자부할 정도”라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심지어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도



광주교육청 오경미 교육국장(25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고교 기말고사 시험 답안지 유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현재로서는 시험지가 유출됐는지 답안지가 유출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오경미 교육국장은 “지난 18일 학부모 등이 교육청에 제보해 19일 학교 현장조사를 했고, 20일 학교 측이 수사 의뢰했다”며 “해당 학생이 쓰레기통에 버린 쪽지에 적힌 답은 정답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조미경 장학관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 간 관계 및 답안지 유출 사실 등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2018년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가 통째로 유출돼 지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해당 학교에서 내신 비리가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교사 노조는 성명을 내고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시험 관련 유출사건이 터진 것은 해당 사립 학교 내에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사학 비리 예방 감시단을 발족해 사립학교 비리 예방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서부경찰은 해당 학생을 성적 평가 등 학사행정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해당 학생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노트 등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답안지 유출 정황은 있으나 해당 학생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수사 절차에 따라 학생을 입건한 뒤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추가 연루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고 설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총경 대기발령에 지역 경찰 거센 반발

30일 전국 현장 팀장회의 앞두고 광주경찰 게시판에 비판 글 쇄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총경을 넘어 지역 일선 경찰들까지 반발하며 집단 행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국 현장 팀장회의’가 충남 아산 경찰안전재개발원에서 열린다.

회의의 부제는 ‘감찰탄압 당장 중단하라’로 서울 광진경찰서 팀장이 경찰 내부망을 통해 제안했다. 해당 글에는 “우리 지휘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나를 배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며 “그 대단한 대기발령, 감찰조사 지칭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회의는 전국 일선 경찰서의 경위, 경감 팀장들을 대상으로 지난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같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광주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경찰 개혁 일방 추진’에 대한 비판의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하루 평균 5개 정도의 게시 글이 올라오던 내부 게시판에 24일 60여 개가 달렸고, 25일에는 오후까지 50여 개가 넘게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의 글들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한 반발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것에 따른 비판의 글이다.

일부 글에서는 ‘근조 뺏지를 달고 근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쿠데타는 어찌해야 하는 건가요’, ‘경정들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등의 강경한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3일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 총경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휴가철 전남 곳곳 사망사고 잇따라

영암 물놀이장서 6세 아이 익사  
순천 조계산서 계곡물에 추락사  
섬·바다에선 응급환자 줄이어

여름 휴가철을 맞은 물놀이장과 바다, 산, 섬 등 전남 곳곳의 휴양지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영암경찰청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영암군 학산면의 한 물놀이장에서 수영을 즐기던 A(6)군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모친과 함께 물놀이를 왔던 A군은 모친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신고 후 10분여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물놀이장은 깊이 20~30cm의 어린이용 수영장이었으며, 인근에 안전 요원도 배치돼 있었으나 사고를 막진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순천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6시 50분께 순천시

송광면의 조계산에서 동호인 회원들과 등산을 즐기던 B(55)씨가 미끄러져 계곡 물에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소방당국은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시간여 동안 계곡 일대를 수색해 B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섬 및 바다에서도 응급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신안군 병풍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관광객 C씨(여·56)씨를 송도항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같은날 오전 11시 20분께는 진도군 외병도에서 발등을 다친 D씨(여·100)를 육지로 이송했으며, 오후 12시 40분께 신안군 상대도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E씨(여·93)도 경비함정에 태워 긴급 이송했다.

해경은 또 지난 23일 진도군 조도에서 80대 여성이 심한 구토 증상을 보이고, 이튿날 오후 3시께에는 진도군 병풍도 남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30대 선원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응급 환자가 발생해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술 취해 잠든 지인 여친 성폭행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만취한 상태로 잠에 든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21일 새벽 5시께 여수의 한 모텔에서 지인의 여자친구 B(23)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점까지 상세하게 묘사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점을 이용해 간음한 것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투자자 모심

1. 자금 - 10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주식회사 오 천  
H. 010-3605-5000

### 신안동, 대인동, 땅, 매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3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200만원씩, 조정가

문의. 010-3605-5000